창립일 1967.9.17. | 제59권 47호. 2026.11.22.

* 지난주 강단제목 :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쳐다보라 (민 21:9, 요 3:14-16)

(1부) 오전 8:30 · 인도 : 심한결 목사, 설교 : 정윤돈 목사
(2부) 오전 11:00 · 인도 : 박범서 목사, 설교 : 정윤돈 목사

★ **입례송**	오르간
★ **예배의 부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24)**
★ **응답송**	찬양대
★ **예배선언**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 **신앙고백**	사도신경(새번역) / 다같이
★ **경배의 찬양**	5장. 이 천지간 만물들아 / 다같이
★ **고백과 용서의 말씀**	설교자
★ **주기도**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주기도송) / 다같이
★ **성시교독**	59. 시편 136편 / 인도자와 회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12)

찬송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 다같이
중보의 기도	(1부) 김헌 장로 (2부) 최신혜 장로
성경봉독	레위기 17:11(구약 173쪽), 히브리서 10:14(신약 363쪽) / 인도자
찬양	(1부) 오 감사하리 / 시온찬양대 (영상) (2부) 우리 함께 주 사랑을 전하리 / 시온찬양대 (현장)
말씀의 선포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완성하신 대제사장 그리스도** **-복음으로 여는 히브리서-** / 설교자
봉헌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 다같이
교회소식	설교자
★ **결단의 찬송**	예수 전하세 / 다같이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두 전하세
사단의 왕국을 깨뜨린 왕의 왕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주의 주
죄에서 해방하신 어린 양 예수 감사하세 찬양하세 증거하세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두 전하세

★ **파송의 말씀**	설교자
★ **봉헌기도 · 축도**	정윤돈 목사

다음 주 기도 : (1부) 이미자 장로 (2부) 김금남 장로

★ 표는 일어서서 · 경건한 예배를 위하여 휴대전화의 전원을 꺼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부서예배

유치부	오전 11:00	인도, 설교 : 이현규 목사 · 장소 : 3층 제2램넌트실
태영아부	오후 2:00	인도, 설교 : 이현규 목사 · 장소 : 3층 제1램넌트실
어린이부	오후 2:00	인도, 설교 : 박범서 목사 · 장소 : 1층 비전홀
중고등부	오후 2:00	인도, 설교 : 심한결 목사 · 장소 : 5층 참사랑홀
대학청년부	오후 3:30	인도, 설교 : 박범서 목사 · 장소 : 5층 참사랑홀

* 매월 마지막 주 주일은 어린이부, 중고등부, 대학청년부 연합으로 예배드립니다. (장소 : 5층 참사랑홀)

수요기도회

시간 : 오전 10:30 / 오후 7:30 · 장소 : 1층 비전홀

기도	(오전) 장길순 권사 (오후) 박희영 권사
인도, 설교	(오전) 이현규 목사 (오후) 박범서 목사

다음 주 기도 : (오전) 정은숙 집사 (오후) 양경아 권사

금요심야기도회

시간 : 오후 8:00 · 장소 : 1층 비전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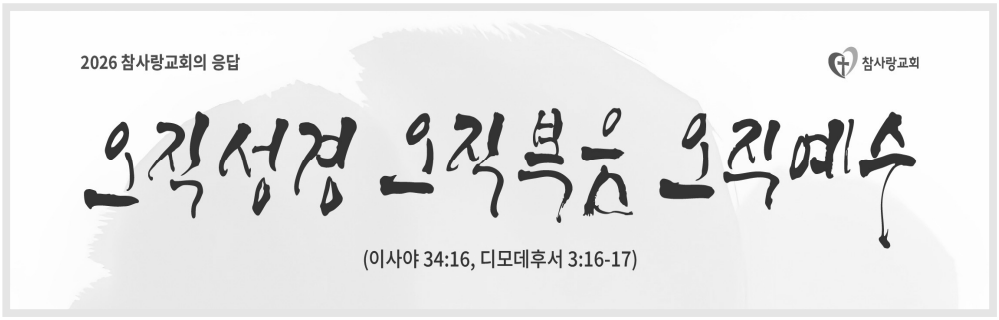
기관보고	재정국
설교	심한결 목사

다음 주 기관보고 : 선교국

새벽기도회

월~토 새벽 5:30

(월) 심한결 목사 (화) 이현규 목사 (수) 이현규 목사
(목) 박범서 목사 (금) 박범서 목사 (토) 심한결 목사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매주 주일 오전 10시 20분부터 10시 40분까지 4층 당회실에서 새가족교육이 진행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안내위원에게 말씀해 주시면 친절히 신앙생활을 도와드리겠습니다.

■ 교회소식

1. 참사랑교회 김장이 11월 25일(수)부터 26일(목)까지 있습니다. 성도분들의 많은 헌신과 참여 바랍니다.
2. 다음 주 주일(11월 29일) 오후 2시부터 5층 참사랑홀에서 렘넌트부서 연합예배를 드립니다.
3. 다음 주 주일(11월 29일) 렘넌트부서 연합예배 후 오후 3시 30분부터 5시 20분까지 참사랑집중선교사 훈련원이 있습니다.
   1) 시간 : 1강(3:30-4:20), 2강(4:30-5:20). 2) 장소 : 5층 참사랑홀. 3) 강사 : 오수영 목사(지구촌선교교회).
4. 본교회의 연말 일정을 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3 연말교역자회의, 12.13 연말당회, 12.20 청지기임명, 12.27 졸업예배/예결산위원회, 1.3 연말제직회, 1.10 공동의회)
5. 히로시마 참사랑교회(심주환 선교사)가 성전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히로시마 지역과 일본을 살리는 일에 많은 성도분들의 헌신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본교회 선교헌금계좌(신한은행 100-033-576822)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입금명 : OOO 일본)
6. 연말에 참사랑 렘넌트 해외어학연수가 진행됩니다. 기도와 후원 바랍니다.
   * 본교회 장학헌금계좌(신한은행 100-033-576780)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입금명 : OOO 어학)
7. 2027년 참사랑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5층 본당 로비에서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8. 복음요절 암송과 구원의 길 그리기를 통해 300영접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1층과 5층 로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9. 예배시간과 헌금안내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일오전예배 - 1부 : 오전 8시 30분, 2부 : 오전 11시. 장소 : 5, 6층 참사랑홀
   2) 수요오전예배, 수요오후예배, 금요심야기도회 / 1층 비전홀
   3) 매일 새벽기도회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며, 녹화하여 새벽 5시 30분에 전체 소통방에 올라갑니다.
   4) 주일 각 부서의 예배시간입니다.
      (1) 오전 11:00~12:20 유치부 (2) 오후 2:00~3:20 태영아부
      (3) 오후 2:00~3:20 어린이부, 중고등부 (4) 오후 3:30~4:50 대학·청년부
      (5) 매월 마지막 주일은 오후 2시부터 렘넌트부서 연합예배로 드려집니다.
   5) 다락방 및 지교회 모임은 시간을 정하셔서 줌이나 전화통화, 유투브를 통해 라이브나 녹화를 하여 양육과 교제와 말씀포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6)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토요일에 헌금을 아래의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입금하실 때 이름과 헌금명을 함께 기록해서 입금하시면 됩니다. (예금주 : 참사랑교회)
      (예 : OOO주정 / 반드시 한글기준 7글자 이내)
      • 일반헌금 : 신한은행 100-013-769840 - 주정, 십일조, 감사, 절기, 차량, 기타헌금 등
      • 헌당헌금 : 신한은행 100-022-072886 • 장학헌금 : 신한은행 100-033-576780
      • 선교헌금 : 신한은행 100-033-576822 • RUTC헌금 : 신한은행 100-035-010731
      * 헌당, 장학, 선교헌금, RUTC헌금을 제외한 헌금은 일반헌금 계좌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 기관 및 교우소식

1. 성도 가정의 장례캠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슬픔당한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김승훈 안수집사(김혜인 집사) 부친 - 故 김제원 님 / 11월 20일 소천, 11월 22일 발인)
2. 교역자의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돈 담임목사 : 11.23 연말교역자회의, 11.25~28 RCA)
3. 대학입학시험 일정을 치르고 있는 수험생 렘넌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서, 김도연, 안지훈, 문성원, 김민주, 심성하, 김주원, 양승우, 황세희)
4. 군과 해외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단은 주보 14면에 있습니다.)
5. 교우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권사, 김원일 집사, 이영경 집사, 이순덕 권사, 박숙자 집사, 김춘례 권사)

■ 참사랑 RUTC소식 (정치, 경제, 문화, 보건, 복지, 과학, 예술, 체육, 예능, 교육, 군경, 공무원)

1. 금토일시대를 준비하는 참사랑 RUTC 렘넌트의 활동신청을 받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내용을 보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및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체카톡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예교실 : 한 달에 1번(토요일) 10시, 2층 식당. (모집 중)
   2) 트릭킹체조교실 : 당분간 운영중지. (담당 : 정수환 집사 010-5527-6067)
   3) 스키&스노보드 : 동계. (담당 : 박찬열 집사 010-8760-0756)
   4) 탁구교실 : 매주 토요일 11:50분, 2층 로비. (담당 : 최혜숙 권사 010-9430-9862)

5) 수묵캘리그라피 : 첫째, 셋째 토요일 19:00, 2층 식당. (담당 : 김순호 장로 010-8630-4414)
6) 기타클래스 : 매주 토요일 14, 17, 19시, 4층 당회실. (담당 : 이명 장로 010-2222-7624)
7) 축구&풋살 : 한 달에 1번. (담당 : 김승훈 집사 010-2098-3141)
8) 트리니티찬양교실 : 첫째, 셋째 수요일 14:30분, 3층 제2렘넌트실. (담당 : 임예진 권사 010-6225-9661)
9) 취미그림교실 : 첫째, 셋째 토요일 17:30, 2층 식당. (모집 중)
10) 복음영어클래스 : 주일(성인) 19시, 토(RT) 3:30분, 1층 초등부실. (담당 : 주은경 권사 010-9542-8212)
11) 드럼클래스 : 매주 토요일 6, 7시, 5층 참사랑홀. 8시 1층 비전홀. (담당 : 김승훈 집사 010-2098-3141)
12) 피아노&기초음악이론 : 개인별 레슨 진행. 4층 찬양대실. (담당 : 이석 집사 010-5067-1426)
13) WIO스마트팜 : 비정기적 열린 포럼 진행.
2. 연기, 연극, 영화, 방송, 뮤지컬 팀을 모집합니다. (담당 : 박범서 목사 010-6335-3719)
3. '서예교실'에 참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문의 : 이현규 목사 010-9736-3556)
4. 피아노&기초음악이론 인원을 모집합니다. (문의 : 심한결 목사 010-8206-2024)
1) 강사 : 이석 집사. 2) 레슨방법 : 주1회 1시간(개인레슨). 3) 레슨장소 및 시간 : 4층 찬양대실, 요일 협의.
4) 레슨비(4주 기준, 1인당) : 피아노 10만원 / 기초이론 6만원. 5) 모집인원 마감 때까지.
5. 취미그림 인원을 모집합니다. (문의 : 김순호 장로 010-8630-4414)
6. 성악 발성반 인원을 모집합니다. (문의 : 김희권 장로 010-2334-6713)
1) 강사 : 김희권 장로. 2) 레슨장소 : 4층 찬양대실.
3) 레슨방법 : ① 매주 화요일 오후 2~4시(회비는 참석할 때마다 1.5만원).
②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오후 12시 30분(회비 : 월 6만원).
7. 자격증 상담(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청소년지도사, 평생교육사, 생활체육지도사 등)을 원하시는 분은 연락하셔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하나원격평생교육원 (문의 : 최영경 팀장 010-6777-8692)

■ 훈련 및 집회소식 (해당되시는 분들이나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매주 토요일 산업선교(오전 9시), 전도학(오전 9시 40분), 핵심예배(오전 10시 30분)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본교회에서 매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층 비전홀에서 핵심예배를 영상으로 함께 드립니다.)
2. 중직자대학원 강의가 오늘 오후 1시 30분에 본교회 3층 제2렘넌트실에서 있습니다.
3. 2026 RCA가 '영적황제의 삶(시78:70-72)'을 주제로 11월 25일(수)부터 28일(토)까지 진행됩니다.
4. 중남미 전도집회가 '올바른 전도운동의 시작(행1:11-14)'을 주제로 12월 1일(화)부터 3일(목)까지 콜롬비아에서 진행됩니다.
5. 제2회 북한선교대회가 '외곽을 확보하라'를 주제로 12월 8일(화) 진행됩니다.

11월 행사 및 일정

구분	본교회 일정 / 세계복음화전도협회 일정
1주차	237새가족현장사역자훈련(3, 덕평 RUTC), 제48차 치유사명자대회(6~8)
2주차	기관총회(8), 연말교역자회의(9), 세례문답식(14) / 제10차 아시아산업인대회(10~11, 싱가포르)
3주차	추수감사주일(15), 수험생기도회(19) / 제23차 2026 여교역자수련회(16, 덕평 RUTC), 237화요제자훈련(17, 덕평 RUTC), 렘넌트데이(21)
4주차	참사랑 김장(25~26) / RCA(25~28)
5주차	렘넌트부서연합예배, 참사랑집중선교사훈련원(29) / 중남미 전도집회(12.1~3, 콜롬비아)

11월 봉사위원 안내

구분	봉사위원
헌금위원	(위원장) 양경심 (위원) 김금남 라종화 신승훈 박희영 양경아 이정미 임소순 임혜연 박주은 이영경
성찬위원	(5층) 임근일 최칠규 이은숙 최신혜 이미자 김금남 최진희 박영인 (6층) 유승범 김순호
안내위원	(위원장) 임근일 (1층) 양경심 김경희A (5층) 최신혜 이은숙 유경선 고진순 (6층) 이정미
주차안내	안수집사 전원

기도제목

■ 연간 기도제목

1. 참사랑교회를 통하여 지역복음화를 위한 3천 제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2026년도는 '오직성경'안에서 '참진리'를 발견하고, '오직복음'으로 '참치유'를 누리며, '오직예수'로 '참구원'을 증거하는 참사랑교회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2. 우리 총회를 통하여 민족복음화를 위한 40만 제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마르틴 루터, 존 칼빈의 개혁주의 신학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교리에 기반한 대한예수교장로회에 속해 있는 참사랑교회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고, 성경적인 신학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총회와 협회와 노회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3. 한국교회를 통하여 237나라 5천 종족,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할 1천만 제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 2026년 참사랑교회 '실천목표 기도문'

"참사랑교회 실천목표를 현장에서 실천하는 가운데 전도자, 제자, 증인의 응답을 앞당기게 하소서"

(1) 주일강단메시지 성취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2) 복음요절을 암송하여 생명의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옵소서.
(3) 성경 1독, 성경 쓰기에 도전하게 하옵소서.
(4) "구원의 길", "십자가의 도"그리기를 통하여 전도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5) 300영접, 30다락방, 3지교회를 통하여 성경적 전도운동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6) 5인 1조의 팀을 형성하여 전문교회 지교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7) 나의 237나라와 나의 선교사를 찾아 선교의 비밀과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8)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현장에 참사랑RUTC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9) 유튜브 10분 복음소식을 통하여 비대면 생명운동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10) 복음컨텐츠 제작을 통하여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이 구축되게 하옵소서.
(11) 300전도캠프 현장이 지속적으로 열리게 하옵소서.
(공원, 병원, 커피숍, 학교, 역, 직장, 쇼핑센터, 노인정 등)
(12) 금토일시대에 사실적인 3가지 뜰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1) W.I.O 협동조합 (스마트팜, 인공지능, 로봇, 생명, 우주)
2) 치유시스템 구축 (중독, 정신, 영, 건강)
3) 예체능 협동조합 (스키, 체조, 탁구, 축구, 악기 등)
4) 고령화시대준비 (100세 묵상요가, 120세 모세건강법)
5) 복음적인 교육복지 시스템이 모델적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13) 70나라 여행캠프를 통하여 세계선교의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14) 70나라에 병원, 약국, 묵상 등 영혼, 정신, 육신 치유의 절대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15) 참사랑전도학교, 참사랑집중전도신학원, 참사랑집중선교사훈련원, 참사랑핵심(주일)을 통하여 부흥의 응답을 주옵소서.

헌당을 위한 헌신

70인 요원 (24명) /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 나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계3:12)"

김경수-강승자-김대식 최정웅-전정아 유경형-라종화 주재잔-권혜경 김경환-최복순 전인숙-김원일 김경화 임근일(양은숙) 신승훈(박영인) 박점순 정연규(이은숙) 김종복(한명희) 박지영

300인 용사 (132명) / "내가 ... 삼백 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 주리니(삿7:7)"

정윤돈 최신영 양은숙 박영인 윤두영 강창숙 최봉식 최신주 박동영 최진희 오국환 이은희 조남은 이은옥 최영철 최후순 최명홍 이계옥 구자성 송영희 허경열 홍승희 박희순 이수용 이미자 유승범 주은경 이영순 박염재 양경심 강현자 김영길 박혜숙 김석재 손혜옥 여동훈 백소정 서정례 박철남 이상춘 서희석 나향님 이승재 심주환 김현숙 이용곤 김경희 송길호 최신혜 채용민 이효숙 오신자 정세완 박희영 정수환 최송화 박준민 황인선 주철우 정선희 권은희 민경환 이명재 구윤진 배형석 박인자 여상훈 노선희 김요셉 김혜정 김남숙 정민호 이서은 최양호 오난희 장성순 박난순 김순자 김 헌 임경미 박범서 김진아 김미선 최칠규 한영화 장영호 여준석 김성열 김순호 배승찬 배명자 신옥희 김태운 이남현 오영숙 정향란 강요한 윤홍광 임혜연 박광현 박성혁 이신순 이희숙 왕진상 김선옥 김종남 김주영 김영진 변연숙 윤소화 김성순 김요한 백순덕 김금남 김복님 임영순 김옥천 김순이 서성원 박서진 이현주 최영애 김선희 강경현 장경희 유경선 정년영 양순옥 공영호 박봉기 박준석 이영희

지난주 하나님께 드린 예물

주일헌금	정윤돈 최신영 최정웅 전정아 박범서-김진아 심한결-정지혜 이현규-김수진 전인숙-김원일 김정엽 유경형 라종화 주재잔-권혜경 이수용-이미자 오국환-이은희 정연규 이은숙 여동훈-백소정 박동영-최진희 최명홍-이계옥 정세완 박희영 신승훈 박영인 김 헌-임경미 김경희 배승찬-이 명 양경심 임근일-양은숙 최칠규-한영화 여준석-양경아 최신혜 김금남 유승범-주은경 김영잔-최혜숙 김순호 이명재-구윤진 강현자 정년영 송영희 오신자 김계자 이정윤 이순덕 강공이 김희권 김미자 임영순 이영순 김갑례-조성균 김순자 문성원 호민수 최송화 신혜선 김나경 김주영 임영순 정향란 김재귀-장소녀 김용관-김정순 박인자 전 진 최재경 정민호-이서은 나경철-신현식 박숙자 문길순 심성하 임소순 윤순옥 김정연 여 명 여종원 안나근 임혜연 최영국-김윤지 정수환 이가예 김태운 이민형 박찬열 김지수 김창균-임예진 고경훈 김지후-이현주 김현성-이미화 정재환 이효숙 김승훈-김혜인 김명철 장유미 유영석 이민수-김숙희 한경숙 이연균 고진순 김영희 안선희 채송아 방주은 배준서 무명15
십 일 조	정윤돈 김지수 정민호-이서은 유경선 이순근 유충현-강공이 신혜선 이수용 이 명 안나근 이아연 조현지 이민형 김성재-윤태자 김현성-이미화 주은경 정연규-이은숙 이수용-이미자 김경희 손혜옥 홍경아 배준서
감사헌금	정윤돈 최신영 양경심 최송화 김미자 김애경 윤성휘 박진수 박학규 정민호-이서은 양순옥-임선규-임예진 홍경아 김지후-이현주 박영인 이은숙 이계옥 박동영-최진희
추수감사	정윤돈 최신영 최정웅 박범서-김진아 김원일-전인숙 김수진 유경형-라종화 이수용-이미자 김미자 신승훈-박영인 여동훈-백소정 박염재-양경심 김나경 김성재-윤태자 장길순 김재귀-장소녀 임혜미 최칠규-한영화 김춘례 이영순 조성균-김갑례 장영호 김경희 신혜선 박인자 유충현-강공이-유승호 김창균-임예진-김하윤-김재승 정년영 박난순 이명재-구윤진 김지열-김금남 이상구-이정미 정세완-박희영 오신자 노은현 김순자 호민수 최신혜 김애경 문길순 김희권 임영순 전 진 배승찬 이 명 박지영 이정윤-이순덕 정향란 박천재 유승호 김용관-김정순 유제숙 김계자 김순호 김채영 방주은 김정연 김일호 안현희 정민호-이서은 여준석-양경아 임혜연 유승환-최아현 조현지 정수환 김지수 김태운 손혜옥 박찬열 최송화 고경훈 김지후 송영희 김현성-이미화 김순호 이효숙 최명홍 이계옥 한경숙 김아리 유영석 권은희 임근일-양은숙 고진순 주재진 김영희 오국환 조부영 박동영-최진희 채송아 오아라 오유라 정창호-김미현 무명6
심방헌금	지복순-임상식-임민재
차량헌금	정윤돈 박동영-최진희
일천번제	최신영
선교헌금	정윤돈 박범서-김진아 이은희 임영순 정수환 김창균-임예진 방주은 유승범-주은경 정재환 김순호 김승훈-김혜인 정연규-이은숙 이수용-이미자 조부영 박동영-최진희 김경희 박지영 손혜옥 무명
치유센터	정윤돈 정민호-이서은 정수환 (★2026년도 총계 635,000원) (★2025년도 총계 5,009,000원 ★지출총계 500,000원)
헌당헌금	정윤돈 최신영 전정아 이현규-김수진 임영순 정수환 임혜미 방주은 유승범-주은경 정재환 김순호 김승훈-김혜인 정연규-이은숙 이수용-이미자 박동영-최진희 손혜옥 여 명
장학헌금	정윤돈 이수용 정수환 유승범-주은경 정재환 김순호 김승훈-김혜인 정연규-이은숙 박동영-최진희
어학연수	정윤돈 정수환
RUTC헌금	정윤돈 전정아 정수환 정재환 김승훈-김혜인 정연규-이은숙 이수용-이미자 박동영-최진희

* 이름이 누락되신 분들은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2026. 11. 11.~ 2026. 11. 17.)

헌당헌금 (2026년도 합계)	129,044,285원	차량 구입헌금 (2026년도 합계)	1,000,000원
참사랑 RUTC헌금 (2026년도 합계)	13,397,172원	어학연수헌금 (2026년도 합계)	2,437,000원

헌당대출잔액 : 일본법화 444,000,000엔 (한화 3,951,600,000원 / 100엔환율=890원기준)

일반헌금계좌 : 신한은행 100-013-769840 참사랑교회 헌당헌금계좌 : 신한은행 100-022-072886 참사랑교회
선교헌금계좌 : 신한은행 100-033-576822 참사랑교회 장학헌금계좌 : 신한은행 100-033-576780 참사랑교회
참사랑 RUTC : 신한 100-035-010731 참사랑RUTC

2026년 구역조직

- 교구장 : 정윤돈 목사
- 1교구(1~3지역) 담당교역자 : 박범서 목사 | 총무 : 이미자 장로

지역/전도인	구역(담당장로)	구역장	권찰	구 역 원 (※ 밑줄은 미션 홈 이상 훈련수료자)
1지역/최진희	①요금1(오국환)	박인자	최진희	최정웅 전정아 **박동영** **최진희** 박서윤 박찬열 배형석 박인자 배영광 정우연 배고은 박점순 이신순 최일숙 조영희 장혁준 **최봉식** 최산주 최해나
	②요금2(박동영)	김주영	주은경	정윤돈 최신영 정예승 정예준 정예건 이재풍 김주영A 이승현 이지훈 **유승범** 주은경 유현나 유현상 유준상 유민상 주종성 박학규
2지역/이미자	③방이1(이수용)	양경아	유경선	**이수용** **이미자** 이채은 **여준석** 양경아 여 명 여수아 정철호 유경선 이진수 정동주 정동훈 김홍기 문길순 김갑례 임상식 지복순 박서이 박필수 박소현 박경구 박도경 박세연 남호정
	④방이2(최칠규)	홍미경	이미자	최재혁 홍미경 최욱현 최모연 박은진B 윤소현A 윤대현 윤차현 박현우 김정순A 최종헌 김명자 김성배 강길자 김윤우
	⑤천호(유경형)	라종화	홍경아	**유경형** **라종화** 이대수 홍경아 이지오 이태이 홍형표 유승환 최아현 유나림 유하림 이영숙 박철남
3지역/김금남	⑥잠실(이은숙)	조부영	김소라	조부영 양승현 양승우 황규철 김소라 황다인 황세희 박광현 **조영주** 박근혜 박지혜 박지영 최보인 권순민 최형란 권유나 권유빈 이효숙 채송아 채정우 **전민식** 구순자 정재홍 전혜진 정리아 조현지 오은사 권구현 김미자
	⑦송파(임근일)	양은숙	박승숙	**김금남** 김수형B 김수민 **임근일** 양은숙 임혜연 유영석 박승숙 유세정 유진아
	⑧하남(김경희)	김영희	한영화	이현규 김수진 이시은 **김경희A** 현백규 김현아 김영희 황혜주 이준영 강정자 **최칠규** 한영화 최종인 손병순 김준석 윤수연 김지유 조수영 홍주원 최영국 김윤지 최리오 심성지 심성하 유지열 송수민
서울·경기		㉔박범서 목사		장미선 김희서 김원준 김유진 문예은 최한나 최한별 권우현 정민진 김대욱 박유신 김혜원 김기채 고정호 고정협 스모모 강지우 전영종 김유나 이재준 이시연 손완식 양은예 손보미 손재현 손보국 이정택 이은선B 이가원
		㉕심한결 목사		권세미 원철호 홍정아 강예은 강예림 김형준 **박현주** 김민규 최영희 김정남 김효경 권영숙 구성하 김수정 김성애 이아름 에 코 박준영 박준은 박지유 김미선 이혜승 이혜준 이현우 이은옥 조유연 조웅연 이재윤 민희선 김가원 김도원 **도상철** **채희은** 도성웅 김경현 강소영 김유은B 김소은 **김석재** 김정길 박순연 박준민 황인선 박수진 박수정 이종관 서숙정 이주한 이지한
		㉖이현규 목사		윤지은 최명지B 고대중 박형진 류성미 박하능 박하론 안진성 문경화 안서윤 안채윤 안신영 신한수 이은주B 신민승 신연서 한경숙 변지영 박형석 강둘봉 박요셉 구황경 이선미 구아라 구지후 이기덕 김복란 이광훈 김명화 최민지 최민기 천 용 이유림 최지원 조현우 이채원 **여상훈** 노선희 여준후 여선후 박은선 **김준일** 최숙영 김하은 김유은A 김은성 송형자 정화영 한주아 한태빈 **최영철** **최후순** 최요한 최지은 최두영 오주희 최하랑 최하율 최하린 김해수

※ 위 명단은 각 구역원과 기도대상자의 명단입니다.

2026년 구역조직

- 2교구(4~6지역) 담당교역자 : 심한결 목사 | 총무 : 양경심 장로 - 3교구(7~9지역) 담당교역자 : 이현규 목사 | 총무 : 최신혜 장로

지역/ 전도인	구역 (담당장로)	구역장	권찰	구 역 원 (※ 밑줄은 미션 홈 이상 훈련수료자)
4지역/ 김계자	⑨오금3 (정세완)	박희영	임경미	**정세완** 박희영 **김 헌** 임경미 김 수 김혜린 **정연규** 이은숙 김춘례 임수미
	⑩오금4 (주재진)	신혜선	권혜경	김계자 **주재진** 권혜경 주예진 신혜선 유연정 유지훈 양순옥 임선규 김태운 김금녀 이종남 김영순
	⑪오금5 (최명홍)	이계옥	최송화	**최명홍** 이계옥 최송화 정수환 정재환 전성배 박은서 김영중 김준영 김민성
5지역/ 양경심	⑫올림픽1 (김헌)	장길순	이영순	유윤식 장길순 유효진 유윤재 이영순 박준석 설정화 박수환
	⑬올림픽2 (여동훈)	정년영	김정연	정년영 김정연 한공순 **허경열** 허지선 박성진 박서연
	⑭올림픽3 (양경심)	이현주	양경심	박염재 **양경심** 박주은 박주영 김수형A 이현주 김지후
6지역/ 김순호	⑮강남 (김순호)	손혜옥	임소순	김원일 전인숙 김구영 빌 마 김의찬 김주찬 안경호 **김순호A** 안도근 안나근 안예근 손혜옥 김주원 김혜원 임소순 천혜숙 강현자 김나경 김희경 김경애 이정민 조연희 조재형 조현근 고경훈 김일호 김두원 김세희 안선희 안민희 안현희 최영혁 김현진 박진수 윤성휘 권혁복 조동범 이세호
	⑯구리 (유승범)	이정미	임영순	이상구 이정미 이진형 최가은 이민형 이주형 전진 임영순 임동영 장유진 이정수 장유선 이진우 김명철 장유미 김지유 전은정
7지역/ 이명	⑰오금6 (배승찬)	이명	임예진	박범서 김진아 **배승찬 이 명** 배준서 배현서 김창균 임예진 김하윤A 김재승 윤순옥 구자성 송영희 이명재 구윤진 이미화 김지영C 김민영 김근호 백순범 윤혜영 백소율 백하율 박환희 오상수 원태연 원아연 김희권 김승훈 김혜인 김지아 김도연 문성원 안지훈
	⑱오금7 (이명)	최혜숙	홍명숙	**김영진** 최혜숙 김시언 김시아 최아영 홍명숙 손가을 손하늘 오신자 니콜라 박경아 라 나 아멜리 김순자 이병부 김정열 김윤태 박숙자 도정호 유경순 도규철 이연균 도지민 김선희 김순호B 이 하 안지용 안수현 박천재
	⑲오금8 (여준석)	고진순	이선아	**오국환** 이은희 오유라 오아라 유제숙 고진순 방주은 정문철 이선아 정유호 정은유 김창대 이정임 김아리 김아영 위준승 문정민 김애경
8지역/ 최신혜	⑳문정 장지 (라종화)	최신혜	이가예	송길호 **최신혜** 송은수 송영민 송지수 신성원 이가예 신현욱 신지유 **장영균** 송미경 장현규 장현우 장이준 장이서 장성순 박난순 장하영 장하은 민경환 권은희 나경철 신현식 나주희 나종훈 박진순 박주봉 박주승 장소녀 김지웅 김정순B 유정빈
	㉑가락 (정연규)	백소정	정선희	**여동훈** 백소정 여현지 여종원 여은성 주철우 정선희 주이서 주이준 주이언 이용도 최재경 이다연 이아연 정민호 이서은 노은현 손상현 **이군재** 이순근 이수산나 허가이 임혜미 송창범
9지역/ 박영인	㉒거여 마천 (최진희)	박영인	이순덕	**신승훈 박영인** 신동윤 이정윤 이순덕 이영경 호민수 정은숙 박지현 이 석 김재우 유충현 **강공이** 유승호 전주율
	㉓강동 (신승훈)	정향란	김숙희	심한결 정지혜 심주언 심지언 심승언 정향란 이민수 김숙희A 이하연 이하준 김은영 차영민 차승민 장영호 소선미 함조식 소숙현 함재이 오인태 김지영B 오하림 오하윤 **김선옥** 김지수 김성재 윤태자 정창호 김미현 정승주 정승우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쳐다보라

–복음으로 여는 민수기–

민수기 21:9, 요한복음 3:14–16

들어가는 말씀 – 광야를 에덴과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믿음

오늘은 민수기 말씀을 나누고 세례와 성찬식도 진행하겠다. 민수기는 히브리어로 '광야에서'라는 제목과 관련되고 영어제목은 'Numbers', 곧 숫자이다. 앞과 뒤에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는 인구조사가 나온다. 하나님은 왜 광야를 주셨을까?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를 지났지만 우리의 인생도 광야와 같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 준 대표적인 모습은 짜증과 불평, 원망이었다. 만족할 수 없고 돈도, 먹을 것도 부족하며 인간관계도 힘들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사를 지내라, 이것을 지켜라, 저것은 하지 말라며 여러 가지 규례까지 주셨다. 우리 인생도 그렇다. 전쟁과 경제문제, 질병과 중독, 사건과 사고가 날마다 일어난다. 앞으로 모든 것이 점점 편해지고 문제가 다 없어질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라. 살아가면서 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광야를 누렸다. 광야를 에덴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었고, 누구나 짜증을 낼 수 있는 상황을 축복의 발판으로 삼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의미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이다. 우리를 짐승처럼 만드신 것이 아니다. 감사와 순종, 거룩한 생활과 인격적인 성숙,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당해야 한다.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선택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광야 같은 세상이라도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 일이 영원히 남는 축복으로 바뀔 수 있다.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보여줄 기회이다. 문제 자체보다 내가 복음과 그리스도로 결론나지 않아 광야가 고통으로만 다가오는 것이 문제이다. 돈 문제, 미래문제, 자녀와 건강문제로 염려하고 심지어 남의 문제까지 간섭한다. 아직도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기준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요19:30)"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 걱정하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일은 완전하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원죄와 자범죄,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대속하셨다. 우리는 내 죄를 놓고는 은혜를 말하면서 남의 죄는 계속 따지고 간섭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다른 사람의 죄까지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다(마6:25–34).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에 인생의 결론을 내야 한다. 근심이 있다면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을 두고 기도하기 바란다. 나는 내 인생과 미래를 걱정해 보아도 내 뜻대로 되는 일이 거의 없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고 계획한 대로만 인도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인도하셨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정체성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보다 먼저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다.

고아원에 송경아라는 아이가 있었다. 송규만이라는 오빠를 비롯하여 형제들이 함께 들어왔는데, 경아는 똑똑하고 착하고 그림도 잘 그리면서 공부는 죽어도 하지 않으려고 했다. 내가 그 오빠를 아끼다 보니 동생들도 자주 만났다. 경아에게 공부하라고 하면 싫어했지만 노트에 만화 같은 그림을 잘 그렸다. 그래서 "너는 그림을 잘 그리니 전문대학 산업디자인과에 가라"고 권했다. 공부하기 싫다고 해서 학교에서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배울 수 있으니 한번 가보라고 설득했다. 결국 산업디자인과에 들어가 졸업하고 취업했다. 그 뒤 한 15년 전 김포공항에서 우연히 경아를 다시 만났다. 회사 직원을 기다리고 있던 경아에게 무슨 일을 하느냐고 물었더니 디자인 회사의 과장으로 일한다고 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녀가 공부를 안 한다거나 원하는 대로 가지 않는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 자녀를 잘 '버리라'는 말을 하는데, 내팽개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다. 자녀와 내 인생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모세도 요셉도 하나님께 맡기는 과정 속에 있었다. 그렇다고 앞으로 문제가 전혀 없다는 말이 아니다. 더 크고 많은 문제가 올 수도 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광야를 에덴으로 만들 영적인 힘이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과 이면계약을 알고, 십자가에서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나의 왕과 주인으로 모시면 문제에 끌려가지 않는다. 세상에는 나중심, 돈중심, 육신중심, 성공중심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 공부와 학벌과 성공이 있어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준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가정과 가문, 나라와 민족과 세계에 실제로 도움이 되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면 모두 광야를 지나고 있다. 가락시장에서 일하는 장로님은 저녁 7~8시에 출근해 밤새 경매 일을 하고 새벽까지 일한다. 주일에는 예배에 참석하고 가족들도 오랫동안 이런 생활을 감당한다. 밤낮이 바뀐 힘든 삶이지만 그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시장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다. 여러분도 어떤 현장에 있든지 그렇게 살아가기 바란다. 금요기도회에 가면 평생 마음과 정신적인 어려움 때문에 약을 드시며 고생하신 분이 예배시작 30분 전에 먼저 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모습을 본다. 그 어려움이 오히려 주님만 바라보는 통로가 될 수 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어려움이 있다. 어떤 분에게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느냐고 물으니, 자녀도 있고 남편은 돈을

벌고 집도 있었지만 매일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아이를 돌보는 생활을 반복하다가 '내가 왜 사는가'라는 질문이 생겼다고 했다. 삶의 의미를 고민하다가 우울한 시간을 겪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이다. 가사와 육아가 잘못되었다는 말은 아니다. 다만 같은 일을 반복하며 '이것만을 위해 사는가'라고 질문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삶의 진정한 목적을 깨닫게 하시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남자들도 출근하고 퇴근하고, 실적을 채우고 꾸중을 듣고, 언제 일을 그만둘까 고민한다. 돈을 벌어도 휴대전화와 자동차, 집까지 할부금을 갚으며 살아간다. 그 반복만이 인생의 목적이라면 허무하다. 우리는 생명을 살리고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살아야 한다. 그런데 "목사님은 세계복음화를 하지만 저는 전도도 제대로 못 합니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 교회에 와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교회를 세우는 데 기여한다. 교회에 사람이 적으면 새가족이 돌아갈 수도 있지만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면 그 자체가 힘이 된다. 함께하는 기도가 전도의 문을 여는 데 쓰임받을 수 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시간표에 따라 특별히 전도할 문을 열어 주시면 현장에 나가 사람을 살리면 된다. 왜 인생의 갈등이 계속 되는가? 하나님과의 이면계약, 곧 나에게 주신 언약과 사명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는 왜 살고 있습니까? 왜 나를 참사랑교회와 대한민국, 이 현장에 보내셨습니까?"라고 기도하며 질문해야 한다.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며 말씀을 들었고, 다니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 가운데 살았다. 지도자나 부모, 선생님, 나라가 완벽하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인생이 무너지지 않는다. 나 역시 어머니께 믿음으로 앞날을 이야기하면 어머니께서 "네가 뭔데 그렇게 말하느냐"고 하실 때도 있었다. 그러나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그 안에 평안, 샬롬을 붙잡을 수 있다. 강단말씀을 반복해서 들으며 나에게 주시는 약속과 길을 발견해야 한다. 그러면 세계를 살릴 수 있다. 세계복음화를 위해 아프리카에도 가기 바란다. 현장에는 위험이 있을 수도 있지만 복음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 선교를 가려면 순교할 마음으로 유서라도 쓰고 가라는 농담도 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에 도전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으니 환경에 속지 말아야 한다.

서론 – 성경 본문의 배경(돌아가는 길과 놋뱀 사건)과 민수기 전체 흐름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거의 다 온 줄 알았는데 다시 먼 길로 돌아가야 했다. 지름길인 '왕의 대로'가 있었지만 에돔 왕이 통과를 허락하지 않았다. 성막과 짐, 장막을 옮기고 더운 날씨와 모래바람을 견디며 왔는데 이제 다 도착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다시 돌아가라는 말을 들은 것이다. 우리도 짐을 다 들고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여기가 아니라 저쪽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하면 화가 나지 않겠는가? 누구나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광야 40년의 마지막 무렵에 불뱀 사건이 일어난 배경이 바로 이것이다. 민수기 21장 4절에는 백성이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공동번역에서는 참지 못하고 하나님과 모세에게 대들었다고 표현한다. 인내하지 못하고 마음이 짧아진 것이다. 내 계획과 뜻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도 기다리지 못한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에는 오래 참음과 온유가 있다.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는 잘하지만 참는 것은 어려워하기도 한다.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오래 참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백성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라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다. 애굽에 그대로 있었으면 부추와 마늘도 먹으며 살았을 것인데 누가 우리를 이곳으로 데리고 나오라고 했느냐는 식이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도 하찮게 여겼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고 많은 사람이 물렸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게 하셨다. 불뱀에 물린 사람이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게 하셨다. 예수님께서는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바로 이 사건을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하셨다. 민수기의 놋뱀 사건은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복음과 연결된다. 민수기 21장 9절에는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고 기록되어 있다. 한 번만이 아니라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광야 같은 사건과 갈등이 찾아올 때 성급해지고 짜증내고 원망하며 근심하기보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 주님께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까지 약속하셨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요11:40)"는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 염려와 조급함, 원망보다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한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이기도 하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처럼 감사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절기를 지키게 하셨다. 미국의 청교도 102명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갔지만 첫해 약 60명이 죽고 추운 겨울을 보내야 했다고 한다.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감사했다는 이야기를 한다. 처음 정착한 매사추세츠 지역의 겨울은 매우 춥다. 우리나라도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던 시기에 외세의 침략과 국권상실의 위기를 겪었고, 일제강점기를 지나야 했다.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다. 오늘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감당할 기회를 가진 나라가 되었다. 날마다 감사하며 현장에서 복음화·전문화·세계화의 응답을 누리기 바란다. 이 또한 성령의 인도를 받아 감당해야 한다. 오늘은 민수기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한다. 민수기는 총 36장으로 되어 있다. 시내산 앞에서 출애굽한 지 둘째 해에 첫 번째 인구조사를 하는 장면으로 시작하여, 가나안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새로운 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장면으로 끝난다. 약 38년의 광야 여정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 한 세대가 광야에서 쓰러졌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셔서 그 자녀들을 약속의 땅 앞에 세우셨다. 민수기에 담긴 사건들을 살펴보면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에 주시는 답을 발견할 수 있다.

1. 민수기에 기록된 주요 사건과 그 의미

1) 1~4장 – 첫 번째 인구조사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두 번 인구조사를 했다. 첫 번째는 출애굽 후 시내산에서 실시한 조사이다.

2) 5~10장 – 정결법과 나실인, 유월절 민수기 5장부터는 정결에 관한 여러 규례가 나온다. 정결법에는 영적인 의미와 현실적인 의미가 모두 있다. 당시에는 남녀와 아이들을 합하면 수백만 명이 광야에서 가축과 함께 생활했다. 제대로 된 의료시설이나 약도 부족한 상황에서 전염병이 생기면 많은 사람이 위험해질 수 있었다. 그래서 위생과 정결을 지키는 일은 매우 현실적인 일이었다. 우리도 세수와 목욕을 하고 병을 예방하며 건강을 관리한다. 코로나19 때 백신을 맞고 방역수칙을 지켰던 것처럼 이 땅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 직장인으로서 지켜야 할 일,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한다. 영적인 의미에서는 죄를 멀리하고 회개하며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한다. 민수기 5장에는 부정한 사람을 진영 밖에 있게 하는 규정과 죄를 자복하고 피해를 보상하는 규정이 나온다. 죄를 지었으면 피해를 갚고 오분의 일을 더하여 돌려주라는 말씀도 있다. 사람을 무조건 가까이하고 아무것이나 따라가서는 안 된다. 중독과 범죄, 나쁜 영향에는 조심할 부분이 있다. 동시에 정결의 말씀을 나에게 먼저 적용해야 한다. 우리 몸이 매일 더러워지기 쉽듯 생각과 삶도 날마다 새롭게 살펴야 한다. 그리스도의 보혈과 복음을 붙잡고 계속 갱신해야 한다. 박사과정을 공부할 때 통계 프로그램 SPSS를 매우 잘 다루는 교수님이 계셨다.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느냐고 물었더니 매일 출근하면 프로그램의 여러 메뉴를 하나씩 확인해 본다고 했다. 조금만 사용하지 않아도 잊어버리기 때문이라고 했다. 전문성을 유지하려면 매일 반복해야 한다. 영어 단어도 외우고 나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또 외워야 한다. 좋은 학교를 졸업했거나 자격증 하나를 땄다고 끝이 아니다. 영어시험 점수는 높은데 실제 회화는 잘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복음도 마찬가지이다. 인간은 잘 잊어버린다. 날마다 구원의 길을 묵상하고 말씀을 반복해서 붙잡아야 한다. 하나님께 받은 전문성도 계속 발전시켜 현장의 서밋이 되어야 한다. 이를 세계복음화와 교회를 위해 감당해야 한다. 나실인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서원을 한 사람이다. 머리를 자르지 않고 포도주를 멀리하며 시체에 가까이하지 않는 구별된 삶을 살았다. 사명을 맡은 사람은 더욱 신중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 지도자와 영적 지도자일수록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한다. 세계적인 기업을 이끄는 사람의 잘못도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복음의 사명자라면 언행과 생활을 더욱 돌아보아야 한다. 민수기 9장에는 유월절을 지키는 내용이 나온다. 유월절은 어린양의 피로 구원받은 언약을 기억하는 절기이다. 우리는 날마다 유월절 어린양이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다시 붙잡고 복음을 점검해야 한다. 그 은혜 안에서 환경과 문제를 뛰어넘어야 한다.

3) 10~14장 – 이동하는 광야에서 반복된 원망 이스라엘은 시내산 광야에서 바란 광야, 가데스바네아로 이동하면서 계속 원망하고 불평했다. 민수기 11장 5절에서 6절에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 것도 없도다"라는 말이 나온다.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에 감사하지 않고 과거 애굽의 음식을 그리워한 것이다. 그런데 백성만 원망한 것이 아니었다. 모세도 하나님께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민수기 11장 11절에서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라고 했고, 13절에서는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라고 했다. 14절에서는 혼자서 이 많은 백성을 감당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15절에서는 차라리 자신을 죽여 달라고 할 만큼 힘들어했다. 이 말씀을 보며 나도 위로를 받았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큰 기적을 체험한 모세도 이렇게 어려움을 토로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도 완벽할 수 없다. 그러나 결론은 원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주께서 해 주옵소서"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다. 광야길 자체도 원망할 만했다. 지도를 보면 왕의 대로를 따라가면 비교적 곧장 갈 수 있었는데 에돔을 지나지 못해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길을 택해야 했다. 약 100km나 더 돌아가는 길이었다. 사진으로 보면 왕의 대로도 험하지만 돌아가는 모압 광야길은 더 황량한 사막이다. 강남노회 성지순례 때 지프차를 타고 그곳을 다녀온 적이 있다. 한 시간 쯤 걸어보니 처음에는 좋았지만 이 길을 짐을 지고 계속 걸어야 한다면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백성의 어려움이 이해되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인내해야 한다. 민수기 12장에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은 일을 두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장면이 나온다. 존경하던 영적 지도자에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갈등이 생겼다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비방한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게 하셨고 모세의 기도를 통해 회복되게 하셨다.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징계이다. 우리도 부모와 자녀, 지도자와 가까운 사람에게 실망할 수 있다. 내가 기대했던 사람이 기대와 다르게 행동할 때 광야 같은 고통을 겪는다. 그러나 인간에게 절대적인 기대를 걸지 말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모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클 수 있기 때문이다. 민수기 13장에서는 가나안을 정탐한 열두 정탐꾼의 보고가 나온다. 그곳에 강한 사람들과 아낙 자손이 있다는 말을 듣고 열 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백성도 원망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끝까지 믿음으로 고백했다. 같은 현장을 보고도 다른 영적 상태를 가진 것이다. 우리도 문제를 보면서 함께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4) 15~19장 – 다시 주신 규례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다시 신앙적인 규칙과 율법을 주셨다. 인간은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죄를 짓기 때문에 사회에도 새로운 법과 규칙이 생긴다. 광야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다.

5) 21장 및 22~36장 – 놋뱀 사건과 새로운 세대의 준비 민수기 21장에는 오늘 본문의 놋뱀 사건이 나온다. 돌아가는 길 때문에 원망하던 백성이 불뱀에 물렸지만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놋뱀을 바라 본 사람은 살았다. 이어서

22장에서 25장에는 발락과 발람의 사건이 나오고, 26장에는 새 세대를 대상으로 두 번째 인구조사를 실시한다. 첫 조사에서는 20세 이상 남자가 603,550명이었고 두 번째 조사에서는 601,730명으로 1,820명이 적었다. 이 숫자를 보며 광야 40년이 얼마나 어려운 시간이었는지 생각하게 된다. 많은 사람이 죽고 세대가 교체되는 고통이 있었다. 설교에서는 그런 현장의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날마다 많은 사람이 죽어 가는 상황을 떠올렸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원망에 머무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라고 하셨다는 것이다.

2. 민수기를 통해 보여 주신 복음과 그리스도의 절대망대

1) 광야훈련은 복음을 깨닫고 전도제자로 성장하는 과정이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겪는 광야 같은 고난과 고통은 복음을 깨닫고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통로가 될 수 있다. 광야를 경험하고 그 훈련을 통과할 때 진정한 전도제자로 성장한다. 단순히 복음을 아는 단계에서 오직 복음, 완전복음으로 결론 나는 과정이다. 이스라엘 수백만 명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끝까지 다른 믿음을 보여 주었다. 여러분도 그 한 사람이 되기 바란다. 광야 같은 선교현장에 가서 그리스도로 결론 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한 사람을 찾아 세우는 것이 중요한 전도캠프와 선교이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다고 절대 원망하지 말라. 감사하고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고 성장시키기 위해 허락하신 환경과 시간표가 있을 수 있다. 그 현장에서 내가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이 짜증내고 불평할 때 그 문제를 통하여 주님을 더욱 바라보는 제자가 되기를 바란다.

2) 싹 난 지팡이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게 한다. 민수기 17장 5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난 것이다. 설교에서는 이 기적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상징으로 설명했다. 죽은 것과 같은 마른 지팡이에 새 생명이 나타난 것처럼 우리의 오래된 불신앙도 부활의 능력 안에서 바뀔 수 있다. 부활의 그리스도를 깊이 깨달을 때 원망과 불평이 줄어들고 감사의 사람으로 변할 수 있다.

3) 놋뱀을 바라보듯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민수기 21장 9절을 다시 보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뱀에 물렸을 때 자기 힘으로 무엇을 만들어 치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놋뱀을 바라 본 사람들이 살았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실 일과 연결하여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은 인자가 들려야 하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한다. 우리의 구원은 사람의 능력이나 노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그러므로 광야 같은 현장에서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염려와 원망으로 돌아가기보다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어떤 환경에서도 언약을 끝까지 붙잡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단 한 번 바라보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날마다 순간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감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결론

광야 같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환경과 상황에 속지 말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보아야 한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불평과 원망의 광야를 하나님 나라와 축복의 발판으로 바꾸고, 말씀을 따라 약속의 땅에 입성하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기를 축원한다.

참사랑 RUTC현황 (예체능체험교실)

	시간 & 장소	담당자		시간 & 장소	담당자
여행캠프	모집 시	정창호 집사	서예교실	한달 토 10:00, 2층 식당	모집 중
트릭킹체조교실	당분간 운영중지	정수환 집사	스키&스노보드	동계	박찬열 집사
탁구교실	매주 토 11:50, 2층	최혜숙 권사	수묵캘리그라피	1, 3주 토 19:00 2층 식당	김순호 장로
기타클래스	매주 토 14, 17, 19시 4층 당회실	이명 장로	축구&풋살	한달 토 오후	김승훈 집사
트리니티찬양교실	1, 3주 수 14:30 3층 제2렘넌트실	임예진 권사	취미그림교실	1, 3주 토 17:30 2층 식당	김순호 장로
복음영어클래스	매주 토 15:30, 주일 19시 1층 어린이부실	주은경 권사	드럼클래스	매주 토 18, 19, 20시 5층 본당, 1층 비전홀	김승훈 집사
피아노& 기초음악이론	개인별 레슨 진행 4층 찬양대실	이석 집사	WIO스마트팜	비정기적 열린 포럼 진행	

교회를 섬기는 이들

담임목사	정윤돈 010-8033-5678	부목사	심한결 010-8206-2024	협동전도사	전인숙 010-8881-5222
원로목사	최정웅 010-5260-5511		이현규 010-9736-3556	사무간사	박난순 010-9930-5558
부목사	박범서 010-6335-3719	목사(전도캠프)	김양순 010-8328-0132		
전도인	최진희 이미자 김금남 김계자 양경심 김순호 이명 최신혜 박영인				
장로	(시무) 유경형 주재진 이수용 오국환 정연규 여동훈 박동영 최명홍 정세완 신승훈 장영균 라종화 김헌 여준석 김경화A 배승찬 양경심 임근일 최칠규 이은숙 최신혜 이미자 김금남 최진희 박영인 유승범 김순호A 이명 김영진 (협동) 이군재 전민식 강공이 (해외) 최봉식 (은퇴) 이명재 강현자 정년영 송영희 오신자 김선옥 (명예) 박철남 김계자 이정윤				
찬양대	(지휘) 고경훈 (오르간) 이서은 임예진 (피아노) 최신영 최송화 이석 (비올라) 채송아				

예배 및 모임 안내

예배			교회학교		
구분	시간	장소	구분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오전 8:30	5층, 6층 참사랑홀	태영아부	주일 오후 2:00	3층 제1램넌트실
	2부 오전 11:00		유치부	주일 오전 11:00	3층 제2램넌트실
	오후 2:00	1층, 3층, 5층 (부서별 예배)	어린이부	주일 오후 2:00	1층 비전홀
	오후 3:30				
수요기도회	수 오전 10:30	1층 비전홀	중고등부	주일 오후 2:00	5층 참사랑홀
	수 오후 7:30				
금요심야기도회	금 오후 8:00		대학청년부	주일 오후 3:30	5층 참사랑홀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5:30	영상			

자체훈련			세계복음화전도협회훈련		
구분	시간	장소	구분	시간	장소
새가족훈련	주일 오전 10:20	4층 당회실	산업선교	토 오전 9:00	1층 비전홀
복음소식	주일 오후 12:30	3층 주간보호센터	전도학	토 오전 9:40	
태영아공동육아	수 오전 11:30	3층 제1램넌트실	핵심요원훈련	토 오전 10:30	
어린이사명자	주일 오후 1:00	3층 제2램넌트실	중직자대학원	주일 오후 5:00	
중고기도회	주일 오후 1:40	5층 참사랑홀	초등전도신학원	토 오후 2:00	
집중전도신학원	수시	참사랑교회	청소년전도신학원	토 오후 2:00	참사랑교회

국내외선교지

선교사파송 100명(협력 및 후원기관)

① 심주환선교사(일본 히로시마) ② 배고은선교사(네덜란드) ③ 이종우선교사(일본) ④ 이성국선교사(러시아)
⑤ 황규영선교사(네팔) ⑥ 임호성목사(서울역 노숙자학교) ⑦ 왕선교사(RTS C107) ⑧ 정회권선교사(필리핀신학교)
⑨ 김동길선교사(케냐) ⑩ 서해영선교사(카자흐스탄) ⑪ 문철선교사(팔라완) ⑫ 벤자민목사(인도)
⑬ 서진태선교사(스리랑카) ⑭ 박종혁선교사(후쿠오카) ⑮ 이준형선교사(영국) ⑯ 이광식선교사(프랑스)
⑰ 전경무선교사(필리핀 세부) ⑱ 보바(우크라이나) ⑲ 유영애선교사(워싱턴) ⑳ 이응남선교사(미국)
㉑ 정석왕회장(사회복지사협회) ㉒ 배문성선교사(필리핀 팔라완) ㉓ 사회복지법인 램넌트

군파송자 (4)

[육군] 송영민 나종훈 이주형 안도근

해외파송자 (26)

[미국] 최형란-권순민(권유나 권유빈) 김국한 박석훈 최봉식-최신주(최해나) 강지우 이진형-최가은 정예준
[호주] 박영준-김수미(박윤성 박민성) 박영환 [영국] 박경아-니콜라(라나 아멜리) [네덜란드] 배고은
[일본] 오유라 [인도네시아] 전민식 구순자

교회 역사

오금동과 함께 성장한 교회 |

1960년대 후반, 정부는 서울 전역의 판자촌을 정리하는 정착지 조성 이주사업을 계획했습니다. 이에 따라 판자촌 주민들은 청소차에 실려, 허허벌판이었던 오금동에 버려졌습니다. 한 가구에 주어진 여섯 평의 땅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이었습니다.

가난과 고통 속에 살던 이 정착민들을 안타깝게 바라보던 남대문교회의 김근숙 권사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군용 천막 하나를 빌리고, 직접 북을 치며 사람들을 불러모았습니다. 이것이 오금동에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인 오금중앙교회, 지금의 참사랑교회입니다. 대머리산에 세워진 조그마한 오금중앙교회 성전은, 마을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1980년 부임한 최정웅 목사와 함께, 이렇게 지역 사회 속에서 성장해 온 오금중앙교회는, 세계복음화를 마음에 품고 2005년에 참사랑교회로 이름을 변경했으며, 2007년에는 현재의 자리에 세 번째 성전을 지어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참된 해답, 참된 사랑인 복음을 굳게 붙잡고, 이 복음만을 말하는 복음 공동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참사랑교회는, 2018년 최정웅 목사를 원로목사로 추대하고, 정윤돈 목사를 담임목사로 위임하여 새로운 도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참사랑교회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 가입된 건강한 교회이며, 60여년 동안 지역 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자라온 토박이 교회입니다.



교회 소개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교회 |

참사랑교회는 종교다원주의를 반대하며, 오직 복음만이 온 세상의 해답임을 믿는 교회입니다.

후대운동으로 후대를 살리는 교회 |

많은 후대들이 학교와 현장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희망은 그들에게 있습니다. 참사랑교회는 후대를 살리고 인재를 키우는 것을 첫째의 우선순위로 삼고, 지역 인재 장학사업, 방과 후 활동 및 상담활동 지원과 같은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선교로 세계를 살리는 교회 |

선교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류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선교를 위해 세워진 참사랑교회는 창립 이후 계속해서 낙도 선교와 남아시아 선교를 후원해 왔으며, 현재는 일본 히로시마와 아프리카 남수단, 몽골 울란바토르, 필리핀 마닐라, C국 S지역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복지로 현장을 살리는 교회 |

병들고 소외된 이들의 벗이 되셨던 주님을 본받아, 참사랑교회는 지역 사회와 어려운 이웃을 섬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및 송파구와 협력하여 참사랑 장애인주간보호센터와 행복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참사랑노인데이케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법인 렘넌트 및 사회복지선교국과 협력하여 지역을 섬기고 있습니다.